



남원대강면, '소망배달부' 식품꾸러미 전달

남원시 대강면 김종표 면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권기환 위원장 등과 날 5~9일 연이은 폭염으로 지친 저소득층 30 가구에게 '소망배달부' 사업으로 식품꾸러미 나눔을 추진, 각 마을 이장과 함께 관내 어려운 이웃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식품꾸러미를 전달하고 인부를 확인하였다.

한 독거어르신은 "덕분에 풍성한 명절이 될 거 같아며, 항상 잊지 않고 찾아와 줘서 고맙다"고 고마움을 표하였다. 권기환 위원장은 "축석을 앞두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특히 민·관이 함께 참여해 상시 취약계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전했으며, 김종표 면장은 "앞으로도 소망배달부 사업을 통해 관내 취약한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풍성한 생활을 보내시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 주천면 정광기 농민회장, 장학금 100만원 기탁

진안군 주천면 농민회 정광기 회장은 11일 군수실을 방문해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정광기 회장은 "사회적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학자금에 후원함으로써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춘성 이사장은 "학생들을 위해 기부한 정광기 회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진학자금에서는 그 뜻을 받아들여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기자



한우협회 진안군지부, 추석 맞아 한우고기 나눔

전국한우협회 진안군지부(지부장: 신재명)는 11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한우 불고기 100kg(300만원 상당)을 진안군에 기탁했다.

신재명 한우협회 진안군지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나눔 행사를 준비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한우 나눔 행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춘성 군수는 "사료값 상승, 한우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우협회의 한결같은 이웃사랑에 감사드린다. 소중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협회 진안군지부는 해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한우나눔행사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안=우태민기자

김제시봉센터, 노인일자리 어르신 손뜨개 가방 나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사회봉사센터(센터장 남궁 행원)에서 활동중인 손뜨개봉사봉사단(회장 엄정희) 회원들이 지난 10일 금산면, 봉남면, 부령면, 황산면 소속 노인일자리 어르신 150여명에게 직접 손으로 만든 손뜨개 핸드폰 가방 나눔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손뜨개봉사봉사단은 센터의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손 끓으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의 사업으로 선정되어 봉사활동을 진행중이며, 4개월 넘는 시간동안 정성이 담긴 가방을 만들어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은정을 일자리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가방을 받은 어르신은 "잃어버릴 수 있는 작은 물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가방을 나눔해주어 감사하다며, 직접 만들어 더욱 소중하다. 유용하게 사용하겠다"라며 만족해했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전문봉사단의 재능을 손뜨개 핸드폰 가방 나눔 전행으로 지역사회에 환원되어서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꾸준히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돋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2028 대입전형 이해·준비 위한 입시설명회'

정읍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 학생·학부모 대상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은 지난 10일 정읍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8 대입전형 이해와 준비를 위한 입시설명회(강사 한국대학육교협의회 상담교사 김훈)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서거석)의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 중학교 3학년 이하 자녀의 진로진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 교육을 대상으로 마련한 행사이이다.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하여 자녀의 진로진학에 대한 열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연수는 '2028 대입전형 이해와 준비'라는 주제로 달리지는 대입전형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업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읍 관내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위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학관련 상담 지원 기회 확대 등



지역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된 뜻깊은 기회였다.

최 교육감은 "전북교육감이 강조하고 있는 학력현상 및 진로진학 활성화를 실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연수를 제공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고 개인 맞춤형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추석 맞아 남원 동충동 곳곳 사랑의 손길 이어져

남원시 동충동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관내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한가위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월에는 주용담건설(대표 이지혜)에서 명절을 맞아 관내 소외된 이웃들 지원에 송편 50봉지를 기탁하였고, 또한 동충동 발전협의회는 백미 20포를 기부했으며, 10일에는 춘향로타리클럽(회장 김유숙)에서 라면과 휴지 총 40세트를 동충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김유숙 회장은 "저희의 작은 성의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소소한 행복으로 다가갈 비판다"라며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차남 동충동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꾸준한 나눔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남원춘향로타리클럽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KLPGA 선수들, 군산 지역발전 위한 고향사랑기부 동참

군산시는 지난 10일 KLPGA 군산 드림투어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며,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한 송은아 선수대표는, "군산시에서 드림투어 참가선수들을 응원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는 내용을 듣고 기부를 하게 됐다"라며, "군산 드림투어 우승도 기쁜데, 의미 있는 기부에도 동참하게 되어 뿌듯하다"라고 밝혔다.

군산시 박종길 자치행정국장은 "KLPGA에서 우승한 선수들과 현장에서 기부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기부는 스포츠 대회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상생의 가치를 두 배로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군산시는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KLPGA 군산 드림투어 기간 동안 군산의 특색있는 디�플레이를 소개하는 홍보 책자를 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다양한 혜택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주소지가 군산이 아닌 개인이 군산 빌전을 위해 기부하는 제도로, 연간 500만 원 한도 까지 기부 가능하다.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와 기부액 30% 상당의 담례품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 담례품은 쌀, 단팥빵, 박대, 젓갈 등 19개 품목의 특산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부는 온라인(고향사랑기부)과 오프라인(NH농협은행)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부금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군산=이지훈 기자



진안군 동향면, 명절맞아 사랑 손길 이어져

진안군 동향면(면장 김대환)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진안군 동향면 외유미을 김석기 이장이 11일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전해달라며 150만원 상당의 삼계탕 50박스를 동향면에 전달했다.

2011년에 동향에 터를 잡은 김석기 이장은 8년여간 매 명절마다 동향면에 삼계탕을 후원하며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석기 이장은 "양계장을 하며 자리 잡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매년 후원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대환 면장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매년 큰 후원을 해주시는 김석기 이장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종합복지관, 반딧불시장서 인권지킴이단 인권캠페인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홍교)에서는 지난 9월 11일 무주 반딧불시장에서 무주군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 인권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캠페인은 무주군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 사회의 인권 문제를 조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권캠페인에서는 인권 관련 영상을 상영하여 참가자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군민들이 느끼는 인권 문제를 투표로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홍교 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이 인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지역 사회의 인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



권 캠페인을 개최하여 군민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 의기부자, 노암동에 현금 기부

남원시 노암동(동장 차미화)에서는 추석 전,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현금 9만6000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사람이나

기부자는 "명절에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부 사유를 전했으며 "살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나눔을 실천하여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고 했다.

기탁된 기부금으로 마련된 물품(김 선물 세트)은 관내 취약계층 40여 가구의 따뜻한 명절 나기를 위해 추석 전, 1일 1가구 방문 시 전달할 계획이다.

차미화 노암동장은 "지기부자의 마음은 큰 힘이 될 것이다. 소중한 마음이 잘 전해지도록 하겠다"는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주천면 지사협, 소외계층 대상 나눔 봉사

남원시 주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영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독거노인, 노인부부, 저소득가구 등 취약 계층 30가구에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하였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지원금을 활용한 것으로, 관내 소외계층이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과일 약과,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명절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한 어르신은 "명절에 찾아오는 가족들도 없이 쓸쓸했는데, 직접 찾아와 이야기도 나누고 꾸러미도 전달해 주니 반갑고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김영근 위원장은 "으로도 소외된 이웃이 없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나눔 봉사를 통해 따뜻한 주천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여성의용소방대 등, 사랑의 빵 봉사

남원소방서와 남원여성의용소방대, 남원용성로타리클럽은 지난 10일 119 이웃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김승현 남원소방서장을 비롯한 봉사자 20여 명은 빵 500개를 만들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일(수) 기부했다.

여성의용소방대 허경이 대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빵을 만들어 나눌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으며, 로타리클럽 송훈철 회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뜻깊은 일에 함께해 뜻깊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드림스타트, 제3차 슈퍼비전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 드림스타트는 11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와 아동통합사례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해 제3차 슈퍼비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슈퍼비전은 위기아동, 가정의 사례개입, 방학과 사례관리 추진 전반에 대해 외부 슈퍼비이자로부터 자문을 받는 과정으로 드림스타트 담당 공무원과 아동통합사례관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슈퍼비전에서는 외부 슈퍼비이자인 전주대학교 김광혁 교수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중 개입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에 대해 복합적 문제 해결방안과 다양한 개입방법을 논의하고 사례관리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자문을 받았다.

사례기입 방법 및 전략, 자원 연계, 사례관리의 방향 등 사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자문은 사례관리사들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질 높은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김제=곽노태 기자